

새만금 입주기업 “자금지원·세금감면을”

행자부장관 등에 호소

10%에도 못미친 분양률

혜택 늘려 활성화해야

기업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지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금 감면 등 유인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새만금 지구의 행정구역 미확정으로 기업들이 재산권마저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새만금지구 입주 예정 기업들은 15일 전북도 새만금지구를 방문한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송하진전북지사에 입주와 관련된 애로점을 호소하고 중앙·지자체의

기업투자유인정책과 지원을 요청했다. 1987년 추진계획이 발표된 새만금사업은 2010년 방조제가 완공됐고, 총 9개 공구 중 2개(4.5km) 공구 매립이 완료됐지만, 자금지원과 세금감면 같은 유인책이 부족하고 사업 불확실성도 상존해 투자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양률은 분양계획면적의 9.6% 수준이다.

새만금 단지의 유일한 에너지 업체인 OCI SE 이호창 전무는 “많은 기업이 새만금에 입주해야 그곳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우리 업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외국인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그 협력기업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새만금지구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토지 등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성수 ECS 대표 “새만금지구의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할 기업들이 등기부 등록조차 하지 못해 재산권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역 확정 전이라도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중섭 행자부 장관은 “국가 전체 목표와 전북도민의 뜻에 맞게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한 방향으로 애로점을 해소해 새만금이 국제적 산업단지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새만금지구를 둘러본 정중섭 장관은 고창군 보건소로 이동해 주민 및 공무원의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장관실’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귀농·귀촌 지원방안과 군정 조직·인사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고창군 귀농 주민인 김한성 귀농귀촌협

의회장은 “귀농·귀촌 성공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켰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며, 여성 귀농인 전은선(40)씨도 “귀농·귀촌 지원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지역인재를 채용, 지원 업무를 맡겼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10만명 미만의 군 지역에 적합한 자치단체 조직·인사제도에 관한 건의도 이어졌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관련 기관과 업무 협력·조정이 원활하도록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정중섭 장관은 “여러분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인사제도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軍 “공사 강행” 주민 “강력 저지”

여수 향일암 인근 생활관 신축 협상 결렬

매년 200만명이 방문하는 전국 최고 해돋이 관광명소이자 국립공원인 여수 향일암 인근에 군부대 생활관이 신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수시와 31사단, 주민 등이 참여한 협의회 2차 회의가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여수시청에서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포마을 주민들은 협의회에서 “넓은 병영생활관 개선은 필요하지만 지역의 상징인 향일암 앞 거북머리 정수리 지점에 군 생활관 신축은 반대한다”며 “기존 생활관을 구조변경(리모델링)해 적정규모로 신축하고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31사단은 주민에게 전달할 의견서를 통해 “현 병영생활관 위치에 신축하면 4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다”며 계획대로 예정 부지에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협상에 참여한 주민 대표들은 “군이 한치의 양보 없이 결정권이 있는 사단장과 시장이 참여하는 3차 협의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항후 벌어지는 모

든 문제의 책임은 31사단에 있다”며 반발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임포마을 주민 50여명은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날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3차 협상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일정조차 잡지 못해 공사 강행을 둘러싸고 군과 주민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 의정단체도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생활관 신축공사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며, 주민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공원 향일암 지키기 시민위원회 김상도 공동대표 등 4명은 지난 12일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회(새누리당)를 찾아 면담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정식 청원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향일암 인근 거북머리 지점에 군 생활관 신축 공사를 추진중인 국방부는 여수시와 지역정치권 등의 중재에도 지난 5일 새벽 기습 공사를 강행해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공연 보고 특산물 저렴하게 구입해요

울돌목 주말장터 내일 개장
먹을거리·공연마당 등 다양

진도군이 진도대교 아래 울돌목 광장에서 17일 주말장터를 첫 개장한다. 진도군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은 15일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진도 울돌목 주말 장터를 17일 오후 3시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매주 토·일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하는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는 보배섬 진도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진도군의 농수특산물을 판매하고, 공연마당, 먹을거리, 벼룩시장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판매 품목은 진도군 대표 농수특산물인 진도홍주와 구기자, 울금 등을 비롯한 각종 채소류와 곡물, 전복, 꽃게, 미역, 돌김 등 다양하다.

울돌목 주말장터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농수특산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믿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은 유통단계 축소로 농어업인에게 새로운 농산물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특산물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울돌목 장터가 활성화되면 진도군의 농수특산물 홍보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제2진도대교 개통으로 위축된 진도 군내내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북놀이와 사물놀이, 색소폰 공연 등 다양한 공연 마당도 마련하기로 했다.

벼룩시장 형태의 아나바다 장터도 함께 열린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울돌목 주말장터를 관광객과의 소통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농수산 소득 1조원 달성 목표에도 보탬이 되는 주말장터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주변에는 세계 3대 해전사에 빛나는 명랑대첩의 실제 장소인 울돌목의 거친 물살을 체험할 수 있는 씨워크(SEA WALK)와 함께 판옥선 등 다양한 체험시설 등이 전시돼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무안 정보화마을 남해·하동과 자매결연

농수산물 판매 등 영호남 공유

무안군정보화마을이 영남지역 정보화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에 나섰다.

무안군의 현경 팽방미마을, 풍탄 약초골현악마을, 청계 월선리예술촌마을은 지난 7일 전남도에서 주최하고 정보화마을 광·전남지회와 정보화마을 광양시협의회에서 주관한 정보화마을

주민교류 행사에 참여해 남해 지족마을, 하동삼산늑차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무안군은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경남 정보화마을

들과 함께 지역의 농수산물 인터네트 판매 마케팅 전략, 농어촌체험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양 매화마을의 운영 사례발표와 함께 매화마을과 청매실농원 탐방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마을 운영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남악=임동현기자 idh@kwangju.co.kr

무안군, ‘각설이 품바 큰잔치’ 개최

일로 화산백련지 16~19일

무안군은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일로를 화산백련지에서 ‘제9회 전국 각설이 품바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각설이 품바 큰잔치는 품바 발상지인 무안 각설이 품바의 전통성과 위상을 높이고, 향토문화 예술 저변확대 및 무안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큰잔치 첫 날인 16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지난 대회 수상자인 고철동 씨의 품바공연에 이어 초대가수들의 축하 쇼가 이어진다.

같은 날 오후 5시부터는 무안읍 승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품바연극의 참시자인 고 김시라 선생의 탄생 70주년을 맞아 극단 가가의회의 특별공연으로 정통품바연극 ‘품바시대’가 무대에 오른다.

주요 공연 프로그램으로 각설이 패션쇼를 비롯한 동동구루무 초청공연, 품바방 초청공연, 퓨전난타 등이 펼쳐지며 포곡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각설이 품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가능한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열린



예정이다.

이 밖에도 품바 옷 입기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설이 분장 페이스페인팅, 난타체험, 짚공예체험, 천사촌 주막 등 놀거리, 즐길거리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전국 각설이 품바 경연대회는 일반부와 신인부로 나눠 열리며, 17일 예선을 거쳐 18일 결선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각설이 타령을 연구무대에 올려 문화예술로 승화시킨 고 김시라 선생은 무안군 일로 출신 연극인으로, 1981년 ‘전애하는 각설이 동지 여러분’이라는 품바 공연을 마을회관에서 첫 선을 보인 뒤 포곡·광주를 거쳐 서울 무대를 통해 전국에 알렸다.

／남악=임동현기자 idh@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필 전망양호 대3억 8천만원
2.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5,100㎡ 황토주택3동 교통편리 대7억원
3.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2,187㎡ 주택96㎡ 공장75㎡ 점포26㎡ 대2억4천만원
4.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주유소 상가, 식당, 카페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대 5억9천

농지 / 임야

1.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전1,528㎡ 혁신도시인근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대5억8천만원
2.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6,331㎡ 혁신도시 근거리 계획관리지역(일부 농림지역) 대7억6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내가리 대4,000㎡ 혁신도시인근 대2억원
4. 나주시 산포면 내가리 전 갈나무 과수원 6,165㎡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대3억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점 대7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대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대2억7천만원
7.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7,547㎡ 2차선도로변 대3억2천만원
8.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대13,530㎡ 면사무소 대2억4천만원
9.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대7,610㎡ 2차선국도변 투자유망 대1억5천만원
10.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임야1,384,140㎡ (대지, 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대30억원
11.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과수원 24,884㎡ 대4억8천만원
12.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임야1,02,480㎡ 도로양호 일부개간 도로양호 투자유망 대3억3천만원
13. 광주시 서구 서창동 임야실제 전9,859㎡ 갈나무의 각종 유실수 식재 창고 2층 수도 전기설치 대6억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동구 수거동 대지 약 422㎡, 건물 1055㎡, 사옥 등 적합 6억6천
- 광주광역시 5분거리 레스토랑 카페용 대지 1054㎡, 건물 473㎡, 은행 2억3천 교환가능 5억6천
- 경북 구미시 오피스텔 35평 분양 4억7천, 교환가능 3억6천
- 남구 서동 대지 약 467㎡, 건물 510㎡, 은행 등 3억7천 대도 천만원
- 장성읍 리모델링한 무인텔 대지 600㎡, 건물 835㎡, 객실 24개 대출3억 계약조건은 조정할 5억3천
- 시내 호텔 대지 923㎡, 건물 2296㎡, 지하2층 지상12층 객실 45실 등 요양병원 등 적합 46억 은행 24억
- 광산구 송정동 원룸 건물 대지 493㎡, 건물 700㎡, 방 27개 김집 6억이상, 대출 2억2천, 전세 1억8천 대도 5억3천
- 충장로5가 대지 126㎡, 건물 419㎡, 공시지가에 대도 2억5천
- 금남로4가 대로변 대지 317㎡, 건물 1235㎡ 은행 4억3천 임대 1억에 월600에 임대 중 공실 있음 14억5천, 투자 가치 좋음
- 무안군 망동면 옥지에서 650㎡ 떨어진 독립식 빌딩, 전원주택, 요양시설 등 적합, 공시가 2억6천 김집 5억3천전세 대도 3억6천

투자 / 매도 / 교환

- 진도군 고군면 산 5101평, 화순 동면 천덕리 대지 97평 5천만원
- 화순 도곡면 월곡리 산 5851㎡, 전원주택, 요양시설 적합 1억천
- 대신시장 입구 대지 394㎡, 건물 1455㎡, 전세2억, 월7000선 15억5천
- 월산파출소 부근 준주거지 309㎡, 주상복합건물 적합 3억4천
- 편성적합 원도군 악산면 가시동해수욕장 2684㎡ 1억
- 김진군 미량면 노인시설등 적합부지 저수지임 13362㎡ 7천만원
- 전원주택 남평읍 오거리 대지 536㎡, 건물 73㎡ 은행 3천 대도 1억
- 순창군 북동면 면사무소 인근 백양사, 내정사, 추월산 모두 10분거리 전원생활 특색있는 식당·차집 등 적합 대지 991㎡ 5천9백만원
- 장흥군 인양면 수문해수욕장 편성 적합지 3458㎡ 교환가능 4억5천
- 용봉동 유창이파트 상가 2층 104㎡ 아파트로 개조 8200만원
- 고흥군 녹동 대지 82평 건물 147평 원룸·투룸 14개, 인집 6억6천
- 남구 노대동 그린벨트 임야 대 89817㎡ 건축허가면적 1449㎡ 수목림 허기있음 투자에 최적, 교환가능 14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충장로5가 광주은행과 수협 부근

나주혁신도시

하늘숲

타운하우스 분양 모델하우스 오픈

자연과 도시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대자연 속에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초특급 독립생활!!

-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쾌적성이 결합
- 넓은 개인정원과 높은 일조권 확보
- 보안 및 관리가 쉽고 소음과 주차문제가 없음
- 개인 프라이버시의 철저한 보장
- 다양한 공동부대시설(공명대 형성의 커뮤니티 시설)

자연과 사람을 위해 집을 스케치하다!

시공 시행 : 성천종합건설(주) 성천 하늘숲 타운하우스 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상담문의 010-6565-2010

개인 병원 부지

- ✓ 상업지역 108평
- ✓ 사통팔달 교통요지
- ✓ 터미널부지 내
- ✓ 인구증급 예상지

귀향공인
010-5236-7458
KTX 개통 송정역 인근
부동산전문

부동산재테크 연구소장 이은진 추천 물건

법원경매매정보

전국 무료 사이트

투데이옥션
1899-9071
하프옥션
공정 감정 대비 30%~70%